http://dx.doi.org/10.35704/YJH.59.1

아프리카 서발턴 여성들의 도전하는 목소리
- 치치 단가렘바의 『불안한 상황』

김미령*

- 목 차 -

I. 서론
II. 아프리카 서발턴들의 “불안한 상황”
1. 순응 혹은 공모하기: 마이니니, 마이구루의 “불안한 상태”
2. 실패한 저항: 냐샤의 “불안한 상태”
3. 탈출에 성공하기: 루시아, 탐부의 “불안한 상태”
III.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짐바브웨 여성작가 치치 단가렘바의 『불안한 상황』을 ‘젠더, 계급, 인종’ 문제를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소설은 탐부라는 로디지아 소녀의 성장소설로 그동안 아프리카 문학에서 주변화 되어 오던 원주민 여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탐부의 식민교육 추구 여정을 통해 아프리카 여성 하위주체의 삶과 그들의 저항을 살펴본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식민주의와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로디지아에서 이중의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원주민 여성들을 ‘갇혀 있는’, ‘저항하는’, ‘탈출에 성공한’ 여성이라는 범주로 나누

* 호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어 제시한다. 가난한 홈스테드의 마이니니와 중산층 지식인 마이구루는 둘 다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공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가 공모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에 강하게 저항하는 인물은 냐샤이다. 또한 그녀는 탐부에게 식민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동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거식증으로 표현된 냐샤의 자기파괴적 저항은 성공적이지 않다. 루시아는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한 여성이지만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덫에서 탈출한 여성이다.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자유롭고 대담하게 사는 그녀는 정신적,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며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간다. 또한 그녀는 여성 연대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소설에서 단가렘바는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둘 다 하위집단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방식이며, 지배이데올로기의 공모에 의해 여성 하위주체는 이중으로 억압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치치 단가렘바, 불안한 상황, 아프리카 문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I. 서론

아프리카의 구어 전통에서 여성의 중심성은 두드러진다. 여성들은 아프리카 구비문학의 교훈적, 도덕적, 교육적 의미를 고려할 때 공연자일 뿐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였다. 하지만 식민교육의 성의 정치학과 빅토리아시대의 이상은 아프리카 문화에서 중요한 여성 존재를 지움으로써 남성들에

게 특권을 주는 위계를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구어 전통에서 "말하는 주체"로서 여성들의 중심적 역할은 제국주의 주체와 가부장제 주체의 공모를 통해 "쓰여지는 대상"으로 변모되었다(Nnaemeka 138-139). 남성 지배적 문화의 아프리카 문단에서 남성 작가들은 여성을 '어머니 아프리카'(Mother Africa)로 이상화하였고 모성(motherhood)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아프리카 여성들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밀접하게 연관된 지배적인 틀이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남성 작가들은 흔히 어머니를 대지, 아프리카, 영원한 아름다움과 동일시하였다. 남성 작가들은 본질주의적이고 아름답고 양육하고 주변화되고 흔히 순종적인 아프리카 여성을 상정함으로써 아프리카 여성들을 이상화하고 낭만화하거나 주변적인 존재로 다루었다(Nfah-Abbenyi 35).

누와파(Flora Nwapa), 오곳(Grace Ogot) 같은 1세대 아프리카 여성 작가들 또한 남성 작가들과 유사성을 보였다. 그들은 남성 작가들처럼 구어 전통에서 찬양받는 독립적이고, 강하고, 존경할만한 아프리카 여성, 식민지 시대 전 그리고 식민지 사회에 그 존재가 위엄과 의미를 주는 여성, 그 존재와 적합성이 오늘날 아프리카 현실의 중요한 부분인 아프리카 여성을 작품에서 삭제했다. 대신 그들은 기존 아프리카 남성 서사를 따라 수동적인 아내, 양육하는 어머니로 여성들을 재현하였다. 그 후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남성 문학 전통에서 유례없이 아프리카 여성 작가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에메체타(Buchi Emechta), 바(Mariama Bà) 같은 2세대 아프리카 여성 작가들은 남성 문학 전통에서의 여성들의 재현에 도전하며 여성 선조들이 구어 전통에서 차지한 공연자와 주체로서의 지위를 다시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남성 작가/비평가의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다. 아프리카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남성]비평가들은 기존의 도덕규범을 주장하였고 그 틀을 벗어난 여성인물들을 비난하고 폄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 아프리카 여성 작가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들의 작품에서 관행을 따르지 않는 여성인물들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지만 변화의 불가피성을 드러냈다(Nnaemeka 140-153). 2세대 여성 작가들은 자신의 운명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여성, 가정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제약뿐 아니라 전통적, 정치적 제약을 초월하려고 애쓰는 여성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작품들을 통해 기존에 침묵당하고 억압당해온 아프리카 서발턴(subaltern) 여성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짐바브웨 출신의 치치 단가렘바(Tsiti Dangarembga)는 2세대 아프리카 여성 작가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설가이자 극작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는 단가렘바는 1959년 로디지아[1]에서 태어나 2살에 가족과 영국으로 이주하였고 1965년에 귀국해서 모국어인 쇼나(Shona)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하며 미국 수녀원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그녀는 1977년에 캠브리지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지만 1980년 소외감과 향수병으로 인해 학업을 그만둔 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짐바브웨가 되기 직전인 고국으로 돌아갔다. 단가렘바는 독일에서 영화를 공부하기도 하였는데 그녀의 첫 장편영화, [모두의 아이](*Everyone's Child*)로 짐바브웨 첫 흑인 여성 감독이 되었다. 2008년에 짐바브웨로 돌아간 담가렘바는 많은 예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88년에 출간된 『불안한 상황』(*Nervous Conditions*)은 단가렘바가 25세에 쓴 그녀의 첫 소설로 짐바브웨 흑인 여성이 영어로 출판한 최초의 소설이다. 이 작품은 1989년에 영연방 작가상(the Commonwealth Writers' Prize)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는 BBC가 선정한, 이 세상을 변화시킨 100

1) 189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로디지아를 의미하며 1965년 스미스(Ian Smith)가 이끄는 정권이 일방적 독립을 선언한 후 1970년 로디지아 공화국이 되었으나 소수 영국계 백인 정권이 다수 흑인들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아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1980년에 마침내 짐바브웨라는 독립국가가 되었다(Selvick 279).

권의 책에 포함되었다. 이 소설로 무명의 단가렘바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런 국제적 찬사와 성공 덕분에 단가렘바는 젊은 세대 아프리카 작가들 중 선두에 위치하게 되었다. 단가렘바는 자신의 처녀작이 짐바브웨에서 출판되길 바랐으나 짐바브웨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영국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남성 비평가들은 이 소설에서 다룬 식민주의나 젠더 이슈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책이 짐바브웨에서 출판되기까지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Okonkwo 53).

『불안한 상황』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로디지아를 배경으로 한 아프리카 소녀 탐부자이 씨고크(Tambudzai Sigauke)의 성장소설이다. 이 소설은 『부정의 책』(*The Book of Not*), 『애처로운 몸』(*This Mournable Body*)[2]으로 이어지는 3부작의 첫 번째 소설로 영국과 로디지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 자신의 삶의 측면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반자전적 소설로 생각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탐부의 교육과 성장을 중심으로 젠더, 사회적 위계, 여성 억압 같은 문제에 더 집중한다"(Mule 98).

『불안한 상황』이라는 제목은 파농(Frantz Fanon)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The Wretched of the Earth*)의 서문에서 싸르트르(Jean-Paul Sartre)가 쓴 구절의 일부인 "원주민의 상황은 불안한 상황이다"(The condition of native is a nervous condition)[3]에서 따온 것이다. 작가는 이 구절을 제목과 에피그라프에 사용함으로써 이 소설과 파농의 저서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알제리 피식민지인들의 임상적 사례를 통해 식민지배가 피식민자들에게 미친 해로운 심리적 영향과 그것의 신체적 징후를 분석한

2) 2018년 출간된 이 소설은 2020년 맨부커상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다.
3) 원문장은 다음과 같다. The status of "native" is a nervous condition introduced and maintained by the settler among colonized people *with their consent*. (Fanon 20).

파농에 따르면 식민지배 하의 피식민자들은 자신에 대한 개념을 열등한 존재로 택하고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그것은 영구적인 긴장상태인 '불안한 상황'을 창조한다. 흑인 남성은 피부색에 의해 지배자의 시선에 노출되어 대상화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들의 불안한 상황은 결국 신체를 통해 나타난다(249-310).

이 저서에서 파농의 관심과 분석은 주로 흑인 남성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단가렘바는 『불안한 상황』에서 기존 아프리카 문학에서 비가시화되고 주변화되어 온 원주민 여성들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식민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억압 아래 '불안한 상태'에 놓인 아프리카 여성 하위주체의 적나라한 초상을 그리고 있다. 플라싸(Carl Plasa)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식민 지배의 작용과 영향에 관한 파농의 통찰력을 이용할 뿐 아니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그것을 확장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35).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영미 백인 여성들이 주도한 서구 페미니즘과 달리, 여성 주체가 속한 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성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페미니즘을 의미한다. 이 소설이 가부장제, 식민주의와 식민교육, 서구 문화의 영향 등 아프리카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비판적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아프리카 서발턴의 삶에 대한 '말하기'를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의 여성억압과 여성 하위주체의 도전하는 목소리들을 들려준다.

단가렘바는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아프리카 여성 작가로 이 작품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불안한 상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성장소설, 식민교육, 거식증, 섹슈얼리티, 여성 연대, 음식과 여성 신체의 관계 등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본 논문은 국내에 다소 생소한 아프리카 여성 작가인 치치 단가렘바를 소개하고 탈식민주의 페미니

즘 관점에서 '젠더', '계급', '인종' 문제를 중심으로 『불안한 상황』을 분석한다. 따라서 주인공이자 화자인 탐부가 식민교육을 추구하는 여정을 중심으로 탐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네 명의 여성인물들의 삶과 그들이 지배이데올로기에 반응하는 방식 또한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해 단가렘바가 이 텍스트에서 시사한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탐구할 것이다.

II. 아프리카 서발턴들의 "불안한 상황"

『불안한 상황』은 자서전 형식으로, 로디지아 쇼나족의 10대 소녀 탐부가 성장하며 주체성과 침묵당한 목소리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탐부의 "길고 고통스러운 [확장의] 과정"(208)[4]에 대한 서사인 이 소설의 플롯은 가난한 홈스테드(homestead)로부터, 미션스쿨 교육을 통해 구현된 사회적, 경제적 해방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의 발전을 향한 야망을 따른다(Rahman 276). 이 소설은 탐부가 과거를 회고하며 어린 탐부가 경험한 것과 이를 서술하는 성인 화자가 아는 것 사이에 모순, 갈등, 부조화를 자아내며 서술하기가 진행된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내 이야기는 […] 나와 루시아(Lucia)의 탈출, 나의 어머니와 마이구루(Maiguru)의 구속(entrapment), 그리고 냐샤(Nyasha)의 반항에 대한 것"(1)이라고 밝히고, 끝부분에서, "내가 여기에서 말한 이야기는 내 자신의 이야기, 내가 사랑했던 네 명의 여자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의 이야기"(208)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 소설은 탐부와, 그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골(Gilian Gorle)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파농이 『대지의 저주받은

4) Dangarembga, Tsitsi. *Nervous Conditions*. London: Women's Press, 1988. 이후 이 텍스트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함.

사람들』에서 거론한 “분열된 주체”(split subject)들로 그들의 “불안한 상황”을 보여준다(237). 식민주의와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로디지아 사회에서 피식민 여성주체는 아프리카의 서발턴이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신체는 사회적 억압과 통제의 직접적인 장소가 된다. 작가는 이중의 억압에 시달리는 쇼나 여성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갇혀 있는 여성’, ‘저항하는 여성’, ‘탈출한 여성’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한다. 탐부가 의식이 성장하고 주체성을 회복함으로써 탈식민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날카롭고 비판적인 관찰을 통해서이다.

1. 순응 혹은 공모하기: 마이니니, 마이구루의 “불안한 상태”

탐부가 속한 로디지아 쇼나 족 문화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가부장제와, 젠더에 따른 성 역할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계급에 따라 억압의 본질이 다르고 다른 형태를 보일지라도 식민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설 속 모든 여성 인물들은 ‘젠더’에 근거하여 억압과 통제를 경험한다.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탐부의 인식은 교육의 기회에 대한 성차별에서 비롯된다. “오빠가 죽었을 때 난 애석해 하지 않았다”(1)라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어린 탐부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13세 탐부는 오빠 나모(Nhamo)의 갑작스런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다. 성인 화자는 나모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을 중심으로 식민지 로디지아에서 자신의 ‘교육 추구 여정’에 대한 서사를 시작한다.

탐부네 가족은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전형적인 쇼나족으로 큰아버지인 바바무쿠루(Babamukukru)의 경제력에 의지하고 있다. 식민교육을 통한 성공신화의 아이콘인 그는 대가족의 가부장으로서 가난한 홈스테드의 친척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신같은 권위를 행사한다. 그는 주기적으로 홈스

테드를 방문하여 탐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탐부 아버지 제레미아(Jeremiah)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형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가장이다. 그는 형의 자선을 바라며 형에게 아부하지만 자기 가족에게는 권위적이다. 백인 선교사들로 부터 영국에서 공부할 장학금을 제의받은 바바무쿠루는 영국으로 떠나기 전 제레미아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교육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7살에 나모는 지역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흑인 부모들은 수업료를 낼 여력이 없어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밭에서 일한다. 바바무쿠루가 오년 동안 영국에 있는 동안 탐부 어머니 마이니니(Mainini)는 아들을 계속 학교에 보내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삶은 달걀과 야채들을 팔아 돈을 모은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8살 탐부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자신은 학교에 갈 수 없느냐는 탐부의 질문에 나모는 "넌 공부할 수 없어.", "넌 아무 데도 갈수 없어.", "어디나 똑같아. 네가 여자이기 때문이야"(21)"라고 조롱한다. 하지만 탐부는 이러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제레미아는 탐부에게 "책을 요리하고 네 남편에게 그것을 먹일 수 있나? 어머니와 집에 있어라. 요리하고 청소하는 걸 배워. 야채도 기르고"(15)라며 타이른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나모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내가 네 머리를 가졌더라면 나는 지금쯤 선생이 되었을 텐데. 어쩌면 의사까지도!"(5)라며 기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는 나모를 교육시킴으로써 사회계층 상승을 꿈꾸지만 탐부에게는 굴종하는 성역할만을 강요한다. "너는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여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 "그녀는 한 젊은이를 만날 거고 나는 모든 걸 잃을 거야"(30)라는 제레미아의 말이 시사하듯, 탐부가 결혼하면 그녀가 번 돈은 남편 가족에게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딸의 교육은 손해 보는 투자이자 낭비인 것이다. 마이니니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젠더에 대한 기대를 탐부가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 "여자의 일은 무거운 짐이야. […] 희생이 필요할 때, 희생해야 할 사람은 너란다. 그리고 이것들은 쉽지 않지. 넌 어린 나이부터 빨리 그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야 해. 나중에 그것이 쉽도록 더 빠를수록 더 좋지. […] 그리고 요즘은 한편에는 흑인의 가난, 다른 편에는 여성의 무게로 더 힘들어. 아! 너를 도울 것은, 얘야, 힘을 가지고 네 짐을 지는 것을 [너 스스로] 배우는 거란다." (16)

식민지 로디지아에서 흑인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난과 여성의 의무'라는 이중의 부담을 의미한다는 마이니니의 충고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부담을 받아들인 그녀의 체념을 보여주는 "극기주의적 조언"(Thomas 33)이다. "여자이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흑인이라는 것으로 고통받는"(91) 탐부의 어머니는 운명론적이고 체념하는 태도로, 여성을 억압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그것의 도구가 된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무능하고 권위적인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받아들이고 홈스테드에서의 끝없는 노동을 말없이 견디어낸다. 홈스테드는 할머니, 어머니, 탐부와 같은 여성들의 노동에 의해 유지된다. 홈스테드에서 여성은 남성적 욕망의 대상이나 재생산을 위한 도구적 존재일 뿐 아니라 끝없는 노동 제공자이다.

하지만 탐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대신 어머니의 고통을 자신의 탈출의 동기부여에 이용한다. 마이니니는 덫에 갇혀있으면서도 벗어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지만 탐부는 최선을 다해 탈출구를 찾기 때문이다. "어머니와는 다른 종류의 여성"(16)인, 바바무쿠루의 아내 마이구루는 어린 탐부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꿈꾸게 한다. 영국에서 돌아온

마이구루는 미션스쿨에서 교사로 일하는 중산층 지식인 여성이다. 탐부는 "가난하지 않고, 여성이 갖는 부담에 으스러지지 않은 마이구루처럼 되는 것이 낫다고 결정한다"(16). 탐부는 당시 로디지아 사회에 흔하지 않은 지식인 여성 마이구루처럼 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키운다. 토마스(Sue Thomas)는 영국식 교육을 통한 발전에 대한 신화에서 탐부의 투자는 "어머니처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33)에서 고취된다고 주장한다. 젠더로 인해 소외된 신분을 극복하려는 탐부의 투지는 학비를 직접 벌기 위해 옥수수를 기르는 시도로 이어진다. 옥수수 "씨앗"(17)을 좀 달라는 딸의 요청에 제레미아는 화를 내지만 마이니니는 "해보게 합시다.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애 스스로 알게 하자구요"(17)라며 남편을 설득한다. 그것은 낙담으로 가득할 미래에 대해 딸이 일찍 배우길 원해서이다. 따라서 어렵게 얻어 낸 탐부의 옥수수 밭은 교육에 대한 그녀의 강한 열망과, 주변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통제하려는 그녀의 시도를 상징한다.

탐부가 옥수수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탐부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역사수업들"(17)은 교육에 대한 탐부의 열망을 더욱 부추긴다. 아프리카 땅에 온 백인들은 "마법사들"(18)로 여겨졌다.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마법사들은 원주민들을 땅에서 몰아내고 부와 사치품으로 꾀어 노예제로 유입되게 했다. 한편 "성스러운" 마법사들은 마을 근처에 미션스쿨을 설립했다. 남편이 광산에서 죽자 여섯 명의 아이들과 남겨진 "현명했고 선견지명이 있는"(19) 할머니는 9살인 큰아들 바바무쿠루를 데리고 미션에 찾아가 선교사들에게 그를 맡아달라고 간청했다. 미션스쿨을 마친 후 정부 장학금을 받고 남아프리카에서 대학까지 마친 그에게 선교사들은 영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제안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바바무쿠루의 성공담일 뿐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17) 산 역사 수업이다.

탐부가 할머니의 “역사 수업들”에서 얻은 메시지는 명료하다. “견디고 복종해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19). 성인 화자는 식민교육을 통한 발전의 신화를 믿는 어린 탐부가 그 이야기 속의 식민주의와 식민교육의 본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역사수업들]은 내 귀에는 진실로 낭만적인 이야기, 보상과 처벌, 원인과 결과의 동화였다”(19)라고 조롱조로 서술한다.

탐부의 옥수수가 잘 자라자 나모는 질투심에서 옥수수를 훔쳐 친구들에게 나누어준다. 이를 알게 된 탐부가 분노해서 오빠를 공격하는 장면은 그녀의 분노와 좌절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싸움을 말리던 마팀바 선생(Mr. Matimba)의 도움으로 탐부는 도시에 가서 옥수수를 팔게 되고 백인 할머니 도리스(Doris)는 탐부에게 몇 년 동안의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10 파운드를 준다. 백인 여성이 탐부 교육을 위해 거금을 주는 것은 백인 선교사들과 바바무쿠루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은 식민지를 착취하며 원주민의 전통을 말살하고 토착어를 식민 모국의 언어로 대체하고 토착문화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조치를 하는 한편 후원자로서 피식민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우월감을 느낀 것이다.

1965년 영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바바무쿠루의 귀국을 환영하여 가족들은 대연회를 준비하고, 제레미아는 과도하게 기쁨을 표현하고, 탐부의 고모인 글래디스(Gladyss)도 무릎을 꿇고, “그가 돌아왔어. 우리의 왕자가 돌아왔어!”(36)”라며 기뻐한다. 하지만 “바바무쿠루의 교육적 지위가, 가장 높은 가부장으로 그가 부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79)는 우웨케(Pauline Ada Uwakweh)의 주장처럼 이는 단순한 형제가 아닌 성공신화의 주역, 그들의 경제적 “후원자”(36)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바바무쿠루는 자신이 교장으로 일하게 된 미션스쿨에 나모를 입학시키고 그를 자신의 집인 미션홈으로 데려간다. 그가 나모를 선택한 것은 그가 아들이기 때문

이고, “오늘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그의 가족이 내일 번창할 아이들”(45)이며 교육은 “배고픔과 궁핍으로부터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일”(56)이 되기 때문이다.

케냐의 작가 응구기(Ngugi Wa Thiong'o)는 그의 저서 『마음의 탈식민지화』(*Decolonizing the Mind*)에서 식민교육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그들의 가족과 문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식을 다루었다. 그는 “언어와 문학은 우리를 우리 자아로부터 다른 자아로 점점 더 멀리 데려가고 있었다”(28)고 말하며 식민 모국의 언어인 영어를 소통언어로 강요하는 것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들의 진짜 자아를 억압하고 식민주의적 정체성으로 동화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불안한 상황』에서 단가렘바는 미션으로 간 이후 나모의 변화를 통해 식민교육이 피식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사한다. 미션스쿨에서 첫 학기를 보낸 후 집에 온 나모는 쇼나어를 잊어버린 체하고 영어로만 얘기하려 한다. 제레미아는 아들의 영어구사력을 “가족의 해방의 첫걸음”(53)으로 여기고 기뻐하지만 나모가 쇼나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와 점점 더 소통하지 않게 되자 마이니니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1968년 나모가 “볼거리”(mumps, 55)로 갑자기 죽게 될 때 마이니니는 바바무쿠루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의 죽음을 직감하고 울부짖는다. 그녀는 마이구루에게 ”처음에는 그가 내게 말을 할 수 없게 그의 혀를 가져가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가져갔어, […] 네가 그에게 마법을 걸었고 이제 그 애는 죽었어”라고 비난하고 바바무쿠루에게 “당신과 당신 교육이 내 아들을 죽였어”(54)라고 소리를 지른다. 또한 집안에 교육시킬 다른 아들이 없으므로 탐부가 나모의 교육을 이어받도록 하겠다는 바바무쿠루의 계획에 마이니니는 맹렬하게 반대하며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57). 열악한 환경에서 이미 네 아이를 잃은 그녀는 “영국성”(Englishness)(207)이 나모

를 죽였다고 믿고 그것에 탐부가 희생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극심한 가난과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며 "여성의 무게"(16)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마이니니의 '불안한 상태'는 후에 탐부가 일류 사립기숙학교인 성심여학교(the Young Ladies College of the Sacred Heart)에 입학하는 것을 반대하며 "점점 더 적게 먹다가 며칠 후에는 먹을 수도, 아무것도 할 수도, 입은 옷을 갈아입을 수 도 없는"(187) 상태로 악화된다. 자식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표시는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것뿐이다.

미션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미션스쿨의 교장이 된 바바무쿠루는 "'거의 같은 그러나 아주 같지는 않은' 백인의 흉내쟁이"(Okonkwo 63)로서 그의 집은 "침범할 수 없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남성/신과 같은 권력의 영역"(Okonkwo 70)인 동시에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받는 공간'이다. 이 소설에서 바바무쿠루와 마이구루는 다른 인물들보다 더 서구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적 관습의 가치들이 그들에게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가부장이자 식민지 엘리트인 바바무쿠루는 남성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여성에게 정숙함, 복종과 존경을 강요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바바무쿠루의 지위는 마이구루의 희생과 지지에 의존하고 "미션스쿨에서 그의 신성(divinity)은 아내 마이구루의 복종과 자주성의 결여에 의해 고취된다"(29). 탐부는 미션홈에서 생활하면서, 중산층 여성 지식인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마이구루가 종속적 여성의 자질을 받아들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이구루는 교육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서구 문화에 노출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시대의 "가정의 천사" 역할을 따른다(Thomas 29). 24명이나 되는 바바무쿠루의 대가족이 명절에 홈스테드를 방문하는 동안 그녀는 자동차에 온 가족이 먹을 충분한 음식을 가득 싣고 가서 "모

든 사람을 위해 노예처럼 고되게 일한다"(124). 준비한 고기가 너무 많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며 휴가를 전부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그녀는 불평하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한다. 또한 미션홈에서 마이구루는 남편의 귀가가 늦어져 그의 식사가 식으면 자신이 그 음식을 먹고 남편에게는 신선한 음식을 대접한다(82). 더욱이 그녀는 남편을 "my Daddy-dear," "my Daddy-pie"(81)라고 부르며 "유아어"(baby talk, 178)를 사용하면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탐부는 왜 마이구루가 쓸데없이 그렇게 가족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소란을 피우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의아해 한다. 또한 탐부는 마이구루가 영국에서 "철학 석사"(99) 학위를 취득한 것을 알고 놀란다. 홈스테드에서는 모두 그녀가 단지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영국에 갔다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 착취'는 가난한 홈스테드 뿐 아니라 중산층 바바무쿠루의 가정에서도 일어난다. 마이구루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희생하고 미션스쿨에서 교사로 일하며 번 자신의 수입에 대해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신의 대가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가부장제에 순응한다. 탐부는 "마이구루는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쓸 수 없었고 결혼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애처롭게 생각했다"(103)고 서술한다. 자신의 욕구나 야망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을 희생하고, 제한하는 젠더 역할과 굴종하는 제공자의 역할을 선택한 마이구루가 희생하는 모습은 '여성의 짐'을 말없이 견디는 마이니니와 비슷하다. 마이구루에게 무례하게 굴며 "그녀는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아"(79)라는 냐샤의 말이 시사하듯이 마이니니처럼 마이구루도 가족을 위해 한 희생에 대해 어떤 인정이나 감사도 받지 못한다.

여성은 "자아와 안전"(103)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탐부에게 말하는

마이구루의 진술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그녀가 지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 재판에서 부당하게 비난당하자 학식있는 마이구루에게 "맹렬한 자매 연대"(140)를 기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루시아에게 "이 일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140)라고 대답하는 그녀의 철저한 무관심은 "바바무쿠루의 문화가 지지하는 남성 리더십에 묵인을 암시하고 따라서 그녀의 예속에 그녀가 간접적으로 공모했음"(Okonkwo 9)을 나타낸다. 겉으로 드러난 마이구루의 평온은 자신을 지우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행복한 체하는 그녀의 신체와 표정에는 "불안한 상태"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 "그녀 얼굴은 아래 부분만 미소 짓는다. 그것은 눈에 이르지 못하고 불만족의 시무룩한 표정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102-103). 탐부는 마이구루가 종속적인 여성성을 받아들인 것을 보며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일지라도 여성은 항상 이류 시민 신분을 부여받는다는 것, 교육이 반드시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배운다.

후에 마이구루는 미션홈에 찾아온 루시아가 용건을 묻는 자신을 무시하고 바바무루쿠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하자 불현듯 집안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결혼생활에서 권력의 불균형을 인식한다. 남편에게 굴종적이던 마이구루는 자신의 돈으로 남편의 대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항의하며 "내 집이 당신 가족을 위한 호텔이 되는 것에 질렸어요. 내가 그들 가정부가 되는 것에 신물이 나요. 내가 부양하기 위해 지겹게 일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구요"(174)라고 토로한다. 마이구루는 가출을 하고 비록 5일 후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녀의 해방에 관하여 진전"(200)을 이루어 낸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명절 동안 남편 대가족을 위해 하녀처럼 일하기를 거부하고 더 이상 유아어를 사용하지 않는다(178). 후에 탐부의 진학 문제에 관해, 사회가 여

성 교육에 편견을 갖는 것을 비판하며 탐부의 선택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가 가출 후 남편이 데리러 올 때까지 오빠 집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남편에서 오빠로, 한 남성의 권위가 다음 남성의 권위로 치환되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마이구루는 냐샤가 거식증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남편 옆에서 침착하게 식사를 하며 침묵, 회피,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바바무쿠루의 식민교육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웨케에 따르면, 마이구루의 교육은 그녀에게 바바무쿠루의 아내로서 독립의 수단이나 힘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초월할 시도를 하지도, 딸이 개성을 추구하는 것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웨케는 "두 어머니[어머니와 큰어머니]는 그들의 예속에서 행위자로 더 작용하는 것 같다. 그들은 딸들이 적극적이고 반항적이기보다는 모두 희생하고, 목소리 없는 여성으로 그들의 운명을 견디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81)라고 주장한다. 마이니니와 마이구루는 식민주의와 가부장제가 공모하여 '착하고 순종적인 여성 원주민'을 만들기 위해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써 불공평한 관습의 꼭두각시나 공모자 역할을 한 아프리카 여성 세대를 형상화하고 있다.

2. 실패한 저항: 냐샤의 "불안한 상태"

『불안한 상황』에서 단가렘바는 '젠더, 계급, 인종'의 변증법을 통해 식민주의와 가부장제가 둘 다 하위 집단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방식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을 개인의 권리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통제하려는 사회문화구조 속에서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원주민의 상황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싸르트르의 말을 자신의

신체를 통해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탐부의 사촌 냐샤이다(Hay 339). 단가렘바는 탐부와 동갑인 사촌 냐샤를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과 식민교육의 본성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로디지아에서 교육은 처음에 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맡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교육 과정의 거대한 부분을 형성하였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와 함께 로디지아 여성들에게 이중의 억압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여성 주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로디지아 사회는 가부장제와 식민주의가 공모하여 토착 식민지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억압한다. 교육을 통해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탐부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식민교육의 "동화"(182) 과정으로 이어지는 반면 식민교육에 대한 저항은 냐샤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냐샤의 가장 큰 특징은 토착문화와 영국문화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그녀의 '잡종성'(hybridity)이고 그녀의 '불안한 상태'는 그 잡종성에서 기인한다. 유학을 간 부모를 따라 5살에 영국으로 간 그녀는 5년 동안 "개인의 힘을 믿는"(Gorle 235) 영국에서 인격 형성기를 보내고 아프리카로 돌아온다. 바바무쿠루 가족의 귀국 환영식에서 탐부는 냐샤가 입은 서구 스타일의 너무 짧은 드레스를 보고 "얌전하지 못하다"(37)고 판단한다. 냐샤의 옷은 그녀가 서구 문화에 동화되었으며 전통적 행동 규범을 무시함을 시사한다. 탐부는 사촌 냐샤와 치도(Chido)가 환영식에서 전통 춤과 음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더욱이 그들이 쇼나어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탐부는 큰 충격을 받고 "쇼나어는 우리 말이야", "이제 그들은 이방인이 되었어. 난 불쾌한 대신 슬펐다"(42-43)고 서술한다.

바바무쿠루 가족이 영국에서 지낸 1960년대는 비인습적, 반권위적, 실험적인 시대였다. 비틀즈, 히피족, 인권운동 등이 상징하듯 전 세계적으로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고 세상과 삶이 개선될 수 있다

는 낙관론이 팽배한 시대였다. 영국에서도 반항적이고,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여성해방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저항운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환각성 약물, 팝뮤직 페스티벌에 환호하였다. 영국에서 자란 냐샤 역시 식탁에서 아버지에게 거슬리는 질문을 거침없이 하고, 부모가 '외설적'이라고 여기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Lady Chatterley's Lover*)을 읽고 "허벅지를 가리기도 힘든 짧은 원피스"(37)를 입고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다. 또한 쇼나문화는 풍만한 여성상을 선호하는데 냐샤는 서구적 이상에 맞는 "날씬하고 관능적인"(201)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며 탐부에게 "엉덩이가 뚱뚱하다"(93)며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런 냐샤에 대해 탐부는 "공손함과 예의범절의 화신인 마이구루가 그렇게 활기 넘치는 딸을 가졌다는 것이 아주 슬펐다"(74)고 서술한다. 탐부는 냐샤가 그렇게 좋은 환경, "큰아버지같은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60)에 감사할 줄 모르고, 버릇이 없다고 평가한다.

탐부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읽는 반면 냐샤는 식민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실제 사람들과 그들의 고통"(94)에 대한 논픽션을 주로 읽는데 이것은 식민역사에 대한 그녀의 의식을 시사한다. 그녀는 남아프리카, 아랍, 영국, 나치와 일본 등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며 "해결책을 알고자 한다면 사실을 알아야 한다"(94)고 주장한다. 하지만 탐부는 미션스쿨을 운영하는 백인들이 가장 어두운 아프리카를 밝게 만들기 위해 안락함과 안전을 포기하고 와서 신의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선교사들의 큰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왔다", "그들이 백인들이어서 그들이 오는 것은 여전히 영광이다"(104)고 믿는다. 하지만 바바무쿠루를 "신"(70)으로 여기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탐부와 달리 냐샤는 그를 "역사의 가공물"(162)이라고 평가하고 어머니가 권위적인 남편의 야망을 위해 자신

을 희생하며 굴종적인 삶을 사는 것에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영국에서의 생활은 냐샤를 아프리카의 역사, 문화유산으로 부터 떼어놓았고 그녀는 고국에서, 낯선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겪는 소외와 단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냐샤의 "진짜"(200) 영어와 그녀의 "영국성"은 다른 흑인 학생들이 그녀를 배척하게 만든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그녀는 자만심에 차 있어", "그녀는 문란해"(95)라며 그녀를 비난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녀는 자신이 백인이라고 생각해"라고 비웃곤 했는데 그것은 저주만큼 나쁜 것이었다(95). 친구들과 친척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된 그녀는 영국에 가기 전에 다른 흑인 아이들처럼 탐부와 함께 만들던 토분(clay pot) 만들기(151)[5]에 강박적으로 몰두하는데, 그것은 "토분 만들기를 통해 잃어버린 쇼나의 어린 시절을 되찾으려는 냐샤의 노력을 보여준다"(Thompson 59).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고 냐사는 "나는 그들에게 몹시 속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200)라고 토로하며 토착문화와 영국문화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 애들[냐샤와 치도]은 너무 영국식이 되었어. […] 그들은 이 모든 무례한 태도를 영국에서 익혔어"(74)라는 마이구루의 말이나, "저 애[냐샤]는 뭔가 잘못됐어, 아주 잘못됐어"(85)라는 바바무쿠루의 말이 시사하듯이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가부장적인 쇼나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체적인 여성이 된 것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인다. 냐사의 하소연처럼, "그들은 아이들이 잡종이 되자 쩔쩔매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79).

미션스쿨 교장으로서 바바무쿠루는 기독교적 덕성을 위한 롤모델일 뿐 아니라 완벽한 기독교 가정을 가지기를 기대된다. 그러므로 냐샤가 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냐샤와 바바무쿠루의 갈등의 중심은 '정숙한' 행위에 대한 문제이다(Gorle 187). 모든 것이 "청교도적 방식"으로

5) 지금은 쇠퇴하였지만 쇼나 문화는 철제품과 도자기(pottery)가 유명하다.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주장하는 "엄격한 완벽주의자"(88) 아버지는 "신성시되는 교장, 존경받는 가부장에 이상적인 딸"(201)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쇼나문화와 기독교적 가치관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바무쿠루의 가정은 청교도적,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진 바바무쿠루가 딸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려고 하므로 권력 투쟁으로 가득하다(Selvic 281). 탐부가 미션홈에서 보낸 첫날부터 냐샤 가족의 역학관계는 분명해진다. 바바무쿠루가 그의 가부장적 권력을 드러내 보이는 장소인 식탁에서 "바바무쿠루의 청교도적이고 가부장적 시스템은 대화를 억누르고 숭배를 강요한다"(Shaw 24). 탐부가 냐샤와 아버지의 갈등을 처음 목격한 것은 냐샤가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식탁에 가지고 왔을 때이다. 바바무쿠루는 자신의 딸이 "그런 종류의 책들"(82)을 읽는 것이 못마땅해 책을 치우고 냐샤는 불만을 표시한다. 또한 식사 시간에, 일찍이 들은 설교에 대해 냐샤가 질문하자 탐부는 그녀의 명민함에 감동을 받지만 바바무쿠루는 "어린애가 내내 말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102)고 질책하기도 한다. 이 말에 냐샤는 더이상 말하지도 먹지도 않고 자리를 뜬다.

바바무쿠루와 냐샤 사이의 갈등은 댄스파티를 계기로 폭력으로 치닫는다. 학기말에 냐샤는 치도, 탐부와 함께 학교 크리스마스 댄스파티에 참석한다. 파티가 끝난 후 냐샤는 백인 선교사 베이커씨(Mr. Baker)의 아들 앤드류(Andrew)에게 새로운 춤을 배우느라 치도와 탐부보다 10분 정도 늦게 귀가한다. 바바무쿠루는 보호자 없이 냐샤를 남자와 단 둘이 두고 온 것에 대해 오빠 치도에게 화를 내고 냐샤에게는 "창녀처럼 행동했다"(116)고 비난한다. 이에 냐샤가 "어떤 나쁜 짓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창녀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걱정해야 해요?"(116)라고 말대답을 하자 바바무쿠루는 그녀를 후려친다. 그가 "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해"(117)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시 때리자 냐샤는 그

의 눈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해를 가하면서 맞선다. 바바무쿠루는 "이 집에 두 명의 남자는 있을 수 없어"(117)라고 선언하며 그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냐샤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위협한다. 가부장의 상징으로 바바무쿠루의 부가 그로 하여금 대가족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게 해주는 반면 그가 냐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은 이 상징적 권위주의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분투를 드러내는 것이다(Selvic 286). 서구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계속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파농이 그의 저서에서 다룬 '식민자의 시선에서 비롯된 피식민의 두려움' 또한 바바무쿠루가 그의 딸의 비관습적인 행동에 그토록 맹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와 폭력적인 대립 후 냐샤는 차고에 숨어 담배를 피우면서 탐부에게 자신은 부모가 원하던 대로 되었으나 "영국에서 나는 편안했는데 지금 나는 추잡한 버릇을 가진 창녀야"(119)라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큰 모욕은 그녀가 섹스를 즐긴다는 것이다. 냐샤는 그녀가 앤드류와 섹스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솔직히, 내 결혼식 날조차,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것을 즐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만족하실 거야"(121)라고 토로한다. 바바무쿠루가 냐샤를 "창녀"라고 비난한 것은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이분법적 시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는 공모하여 이상적 여성성을 강요하며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의 신체를 훈육시켰다. 따라서 냐샤에게 있어서 섹슈얼리티의 주장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자 자주권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바바무쿠루와 냐샤 사이의 신체적 폭력은 청교도적 가부장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착한 여성"(89), "정숙한 여성"(192)이 되기를 강요당하는 식민지 여성 주

체가 목소리 내기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탐부는 바바무쿠루의 폭력에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는 냐샤의 태도에 충격을 받지만 한편으로 냐샤가 아버지에 의해 침묵당하고 육체적으로 패배당하는 것이 홈스테드에서 오빠와 자신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느낀다. 탐부는 모든 것이 "여성성"(femaleness)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며 여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가난, 교육의 부족, 전통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깨닫는다. "남성성에 반대되고 열등한 것으로서의 여성성"(118)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 냐샤가 "그녀의 여성성의 희생자"(118)라는 것을 탐부는 인식하게 된다.

탐부는 냐샤가 아버지와의 대결이후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찾기를 바라고"(118) "자아 대 굴복의 갈등"(120)을 겪고 있다고 느낀다. 영국에서의 교육과 경험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주체가 된 냐샤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자신을 규정하게 하거나, 남자의 기대에 자신의 세계를 한정시키기를 거부한다. "그[바바무쿠루]는 마치 내가 그가 원하는 곳에 부어질 수 있는 물처럼 나를 취급할 권리가 없어"(121)라는 냐샤의 말은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 소설에서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가부장제의 억압에 저항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젠더 역할, 가부장제, 부모의 기대, 그런 강한 힘들이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자 냐샤의 이중성은 자기 안으로 몰입하고 그녀의 "불안한 상태"는 "신경성 거식증"(anorexia nervosa, Gorle 181)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탐부가 성심여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떠나기 전날 냐샤와 탐부가 예정된 저녁식사 시간보다 1시간 늦은 7시에 나타나자 바바무쿠루는 "내가 6시까지 돌아오라고 했지. 그게 정숙한 소녀가 귀가할 적당한 시간이야"(192)라고 야단친다. 냐샤가 남자 아이들과 놀다 온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온 것이라고 반박하며 식사를 거르려고 할 때 바바무쿠루는 많은 양

의 음식을 주고 그녀가 음식을 다 먹도록 강요한다. “저 애는 자기 음식을 모두 먹어야 해. 저 애는 항상 내게 도전하고 있어. 난 저 애 아버지야”(193)라고 화를 낸다. 냐샤는 유순하게 그 음식을 모두 삼키고 조용히 욕실로 가서 ‘전부 토해낸다’(193). 쇼(Carolyn Martin Shaw)에 따르면, 바바무쿠루가 냐샤의 섹슈얼리티를 감시하는 것은 그가 미션스쿨에서 배운 기독교에서 많이 유래한다. 그리고 여성을 속박하고 통제하는 전통적인 쇼나의 이상이 청교도주의와 맞물린 것이다. 또한 쇼는 냐샤의 불안한 상태가 음식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9-11). 냐샤는 “그는 나를 정말 화나게 해. 그가 신처럼 굴 때 나는 그저 입을 다물 수가 없어”, “한 접시의 음식에 대한 이 모든 야단법석을 상상해봐.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음식 이상이야. […] 그것은 모두 소년들과 남자들 그리고 정숙하고 외설적인 것, 그리고 착한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것들이야”(193)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행동이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냐사의 삶에서 “간격에 다리를 놓는”(200) 역할을 하던 탐부가 성심여학교로 떠난 뒤 냐사의 소외는 심화된다. 냐샤는 학교에서 그녀의 “영국성”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그녀의 영어는 “진짜”(200)인 반면 쇼나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냐사가 “남자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200)고 비난한다. 마지막 장인 10장에서 탐부가 성심여학교에서 2학기를 마치고 미션홈에 돌아올 때 냐샤는 “해골같이”(202) 마른 모습으로 ‘역사책’에 깊이 빠져 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끔찍하게 이상하고 음산한 드라마”(202)가 펼쳐진다. 저녁 식탁은 바바무쿠루가 냐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싸움터가 된다(Shaw 11). 그는 냐샤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덜어주고 그녀가 그것을 다 먹도록 강요한다. 냐샤는 음식을 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삼키

고 조용히 욕실로 가서 그 음식들을 다 토해낸다. 오콘쿠(Christopher Okonkwo)에 따르면, 바바무쿠루가 강요하는 음식은 “그의 남성, 권력, 이데올로기”(60)를 의미한다. 바바무쿠루는 식민교육을 통해 습득한 엄격한 청교도 관례로 냐샤를 “정숙한 소녀”(192)로 만들려는 것이고 쇼는 이런 그의 태도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의 통제”(9)라고 주장한다. 한편 서그넷(Charles Sugnet)은 바바무쿠루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제레미아가 “맹렬한 식욕으로 영어 글자들을 집어삼킬듯이 읽는다”(36)고 표현한 것과 연관시켜, 이 소설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피식민자가 식민주의와 “영어글자가 상징하는 식민교육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것에 대한 은유”(36-38)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냐샤의 거식증은 ‘착하고 정숙한 원주민 여성’이 되기를 강요하는 식민교육,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말라가던 냐샤는 어느 날 밤 히스테리를 부린다. 그녀는 감정이 격해져서 미친 듯이 날뛰며 자신과 탐부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훔친 식민주의의 해악에 대해 격렬히 비판한다.

> “그녀는 미친 듯이 날뛰고, 치아 사이에 역사책을 찢고 (‘그들의 역사. 빌어먹을 거짓말쟁이들. 그들의 빌어먹을 거짓말들.’) 거울들, 토분들, 그녀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깨고, 그 조각들을 사납게 그녀 몸에 찌르고, 이부자리를 벗겨내고, 옷장에 있는 그녀의 옷들을 찢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그들이 우리를 가뒀어. 그들이 우리를 가뒀어. 하지만 난 갇히지 않을 거야. 난 착한 소녀가 아니야. 난 갇히지 않을 거야.’ (205)

위 장면에서 냐샤가 깨뜨린 물건들은 식민지 여성들의 신체와 목소리를 억압하는 지배적인 힘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냐샤는 그 힘들을

깨뜨리고 도전하며 억압을 허무는 과정을 시도한 것이다. "난 그들 중 하나도 아니지만 당신들 중 하나도 아니야"(205)라고 말함으로써 냐샤는 쇼나의 이상적인 여성다움에 대한 아버지의 신화의 착한 소녀도, 백인 로디지아인이 상상하는 순종하는 깜둥이도 아님을 밝힌다(Thomas 32). 또한 "그들[식민자들]이 그것을 나에게 했어.", "그들이 그들[피식민 남성들]에게도 그것을 했어.", "그들이 그[바바무쿠루]가 그 모든 것을 겪게 했어.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야"(200)라며 바바무쿠루 또한 식민교육의 희생자임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맥윌리엄스(Sally McWilliams)는 냐샤의 광란은 기존 경계들, 대조, 지배 역사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 경험을 식민 로디지아의 더 넓은 역사, 정치적 맥락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10). 마이니니, 마이구루가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에 순응하고 공모한 양상을 보인다면, 냐샤의 신체적 반항은 그것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응수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저항을 지지받지 못한 냐샤는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신경쇠약으로 이어지게 된다(Uwakwe 82). 마이니니는 냐샤의 거식증에 대해 "[우리]선조들은 그렇게 많은 영국성을 삼킬 수 없었어", "문제는 영국성이야, 그러니 너도 조심해"(207)라고 탐부에게 경고한다. '쇼나어를 잊어버린' 냐샤와 치도, 미션스쿨로 떠난 후 홈스테드 가족을 열등하게 여기고 멀어져간 나모와 탐부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마이니니는 그들이 영국성에 "굴복한"(207)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단가렘바는 백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전형적인 식민지인 바바무쿠루가 냐샤를 통제하는 모습에서 식민지적 억압과 성적 억압이 서로 상응하는 체제임을 시사한다. 식민주의와 가부장제는 공모하여 토착 식민지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억압한다. 이에 대한 냐샤의 저항은 자기 파괴적인 거식증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녀는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보내진

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 화자는 냐샤의 반항을 실패한 저항이라고 범주화한 것 같다.

하지만 탐부의 '서술상의 대응인물'이자 '또 다른 자아'(alter ego)라고 할 수 있는 냐샤는 탐부의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비판적으로 식민교육을 추구하는 탐부에게 "냐샤의 탈식민주의적이고 페미니스트적 시각"(Aegerter 234)은 식민교육이 내포한 동화의 위험성,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공모에 대해 인식하게 하여 탐부가 식민교육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탈식민 여성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나에게 물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극도로 고통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말했을 것이다"(207)라는 탐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짐"이 단순히 가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던 탐부에게 냐샤는 여성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의심의 씨앗"(207)을 심어준 것이다. 탐부는 "의심의 씨앗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너무 열렬히 홈스테드를 떠나 미션스쿨의 '영국성'을, 그 후에는 성심의 더 집중된 '영국성'을 받아들였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207)고 말한다. 하지만 성인 화자는 "나는 의심을 몰아내고, 그것을 내 무의식 깊이 묻어버리고, 행복하게 성심으로 돌아갔다"(208)고 말하며 어린 탐부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 자조적인 어조로 서술한다.

3. 탈출에 성공하기: 루시아, 탐부의 "불안한 상태"

『불안한 상황』에서 여성 억압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저항의 행위는 탐부의 이모, 루시아에 의해 행해진다. 냐샤가 거식증을 통해 여성 억압과 섹슈얼리티의 통제에 저항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처럼 루시아의 경우에도 이 이슈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배이데올로기의 억압

에 온몸으로 저항하였으나 실패한 냐샤와 달리 화자는 루시아를 탈출에 성공한 여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루시아는 마이니니처럼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흑인 여성이지만 식민지의 가난한 시골 여성의 성공적인 저항을 보여주며 탐부에게 롤 모델이 된다.

루시아는 많은 면에서 쇼나 족의 이상적인 여성상과 달라 홈스테드에서 "악하고, 비정상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148) 여성으로 여겨진다. 마이니니처럼 검지만 피부아래 밝은 빛이 나서 다른 여성들이 사용하는 피부를 밝게 하는 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 그녀 피부는 악화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여전히 "빛나고 건강하다"(127). 다른 흑인 여성들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미백크림을 바름으로써 피부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과 달리 루시아는 그런 크림을 쓰지 않아 항상 빛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건강한 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쉬지 않고 혼자서 일 에이커의 땅을 경작할 수 있을 정도로"(129) 신체적으로 강인하다.

무엇보다 루시아가 다른 여성들과 구별되는 점은 가부장제 내에서 젠더에 따른 기대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구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녀의 몸은 "그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식욕"(155)을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그녀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가부장제의 이상에 심각하게 지장을 준다. 결혼이란 제도에 의해 제약당한 마이니니나 마이구루와 달리, 루시아는 결혼제도 속으로 편입되지 않은 여성이다. 가부장제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녀는 전통 가부장제 관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이므로 '나쁜 여성'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마이니니가 임신한 동안 언니를 돌보기 위해 홈스테드에 온 루시아는 곧 제레미아와 잠자리를 하고 또한 그의 사촌, 타케슈레(Takesure)와도 관계를 맺는다. 가부장 사회에서 섹슈얼리티를 구가하는 여성은 사회로부터 음란한 여성, 창녀로

여겨지며 배제되고 경멸되어 왔다. 홈스테드에서도 루시아는 "문란한 여자", "마법에 걸렸다"(128)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쇼나 문화에서 여성은 결혼 때까지 정숙하게 남아있고 일단 결혼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요구받는다. 루시아는 결혼하지 않고 충실한 아내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남자와 잠자리를 하기 때문에 "마녀"로 불린다. 사람들은 "루시아를 봐! 하! 여자다운 데가 없어. 그녀는 어중이떠중이하고 자지만 아직 애도 하나 없잖아. 그녀는 마법에 걸렸어. 그녀 자신이 마녀일 가능성이 더 많지"(128)라고 그녀를 비난한다. 예쁘고 결혼하지 않은 루시아는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으므로 '문란하다'는 딱지가 붙었고,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가부장제 내에서 여자로서 가치가 없는 "마녀"인 것이다. 결국 루시아는 일부러 타케슈레가 자신을 임신시키게 하고는 제레미아를 아이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그 집을 떠나기를 거부한다(129). 제레미아와 타케슈레같은 가부장들을 이용한 루시아의 교묘한 조작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가부장제의 규범을 깨뜨리고 남성 질서를 교란시킨다.

쇼나 문화에서 루시아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특성은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그녀의 능력이다. 루시아는 그녀 자신의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녀가 맞닥뜨리는 불평등에 맞서 항의하기 위해 사회의 편견에 저항하는, 교육받지 못했지만 강하고 자유로운 사상을 지닌"(Wright 10) 루시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바무쿠루와 홈스테드의 다른 남자들에 맞서는 여성이다. 루시아의 '문란한' 행위가 가족의 체면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한 가부장 원로들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합을 갖는다. 가족 재판에서 루시아와 타케슈레의 문제가 다루어질 때 여성들은 '부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남성 우월성과 여성 목소리의 억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루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제레미아와 타케슈레는 전적으로 그녀를 비난하고 곤란에 처한 타케슈레는 그녀를 "마녀"라고 비방하며 그녀가 잠자리에서 마법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남자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폄하하는 것을 들은 루시아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방에 불쑥 쳐들어가 타케슈레의 귀를 잡고 자신을 "마녀"라고 부른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루시아는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에 남아있기를 거부하고 여자는 참석할 수 없는 자리에 걸어 들어가 "자제하지 않고"(143) 맞서 자신을 변호한 것이다. 홈스테드를 떠나라는 강력한 요구에도 루시아는 제레미아가 형의 관대함에 빌붙어 살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고 마이니니에게 고통만 주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의 우울한 언니와 함께 갈 수 없다면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다. 결국 가부장 회의는 루시아가 머물며 언니를 돌보는 것을 허락한다. 홈스테드에 머무는 것을 허락받음으로써 가부장제에 맞서 승리한 루시아는 타케슈레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나간다. 또한 다시 남자들에게 "식욕"(155)을 느낄 때 그녀는 타케슈레의 침대로 돌아가지만 냐샤처럼, 루시아는 결코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루시아는 해방을 위한 직접적인 대립과 저항의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 타협과 협상의 중요성 또한 잘 알고 있다. 마이니니가 미션 병원에서 아이를 낳자 루시아는 그녀를 돌봐준 후 퇴원할 때 미션홈으로 바바무쿠루를 찾아가 그에게 일자리를 부탁한다. 결혼하여 홈스테드에 정착하는 대신 그녀는 남자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루시아는 가부장인 바바무쿠루의 힘과 자선을 칭찬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부양할 수 있도록 미션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그를 설득한다. 루시아가 부탁할 때, 바바무쿠루는 냐샤의 반항으로 도전받은 강력한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루시아는 자립하기 위해 이런 그의 욕

망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립하기를 원하는 루시아는 강력한 가부장으로서의 바바무쿠루의 지위와, 그의 도움이 없이는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며칠 후 바바무쿠루는 루시아에게 여학생 호스텔 주방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로써 루시아는 독립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야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루시아의 요청과 그 결과는 주위 여성들을 놀라게 한다.

이처럼 가난한 시골 지역 출신의 흑인 여성일지라도, 정신이 "처음에는 아버지에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속하는"(155) 마이니니와 달리 루시아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족쇄에 쉽게 매이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쇼나 관습을 잘 알고 있는 한편 자신의 신체와 섹슈얼리티를 지배 이데올로기에 통제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간다. 또한 가족재판에서 도움을 청하는 루시아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한 마이구루와 달리 루시아는 여성해방을 추구하기 위해 '여성 연대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극심한 가난과 계속되는 아이들의 죽음, 홈스테드가 요구하는 끝없는 노동으로 지친 마이니니가 탐부의 진학문제를 계기로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단식을 하여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어린 아들의 건강 또한 악화된다. 루시아는 언니를 강으로 데려가 씻도록 강요하는 한편 아기를 바위 위에 위태롭게 앉혀놓는다. 루시아는 아기가 떨어져 물에 빠질 것을 염려한 마이니니가 결국 아들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며 삶으로 되돌아오게 만든다. 이처럼 루시아는 아픈 언니가 회복하도록 돕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벌로 탐부가 과도한 집안일에 시달리는 걸 알자 그 처벌이 부당하다고 바바무쿠루에게 항의하며 결혼식을 원하는지 마이니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지 따지는 한편 탐부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또한 그녀는 독립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여성의 연대 형

성과 자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쇼나 족의 남성 중심의 문화를 파괴하고 젠더 구분 없는 환경을 되살리려는 루시아의 시도는 탐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탈출에 성공한 루시아의 저항은 토착문화와 식민주의가 공모하여 여성을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안한 상황』에서 나모의 죽음은 탐부 인생의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식민교육을 통해 "그녀 아버지의 성차별주의와 아프리카 시골에 식민화의 계속되는 유산인 가난"(Aegerte 234)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탐부는 미션스쿨에서 식민교육의 본질을 깨닫고 전통문화와 서구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탐부는 미션홈으로 가기 위해 바바무쿠루의 차에 올라탈 때, 다 해진 옷을 입고 무릎에 검은 굳은 살이 박히고 기름기가 부족해서 피부에 비늘이 있고, 영양이 부족한 칙칙한 머리칼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소작농"(58)으로 표현한다. 이전의 자아는 남겨두고 "바바무쿠루의 집에서 나는 또 다른 자아(another self), 홈스테드에서는 길러질 수도, 생존할 수 없었던, 깨끗하고, 말쑥하고, 우아한 자아를 발견하기를 기대했다"(58)고 성인 화자는 회고한다.

미션홈에서의 첫날 바바무쿠루는 탐부에게 "정신적,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한 물질적 해방"(89)을 위해 미션스쿨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가진 그녀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설명하며 탐부에게 "총명한 소녀지만 또한 착한 여자"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탐부는 그가 "이 두 가지 특성을 똑같이 강조하고 이 말 속에 어떤 모순도 보지 못한다"(89)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선량함은 그의 시각에서 순결, 겸손, 복종의 기독교 계율과 관련되고"(Waugh 6), 바바무루쿠의 말은 토착 식민지여성에 대한 식민교육의 목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탐부가 미션스쿨에서 교육받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성탄절에 홈스테드

로 돌아갈 때, 독자는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다. 1장에서 나모가 그랬던 것처럼, 몇 달 만에 집에 간 탐부는 자기 가족의 가난에 충격을 받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탐부는 자신이 떠난 후 아무도 오두막을 돌보지 않아 지붕과 벽의 크게 갈라진 틈으로 비가 새고 변소가 더러운 것을 보고 어머니가 왜 불결한 상태로 살기를 선택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녀는 "왜 변소를 더 이상 청소하지 않죠?"(125)라고 어머니를 비난할 뿐 네 아이를 잃은 후 또다시 임신한 상태에서 우울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탐부의 모습은 그녀가 비판하던 나모의 변화를 상기시킨다. 애거터에 따르면, 탐부는 집으로부터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집은 그녀에게 더 "더럽고" 불쾌한 것이 된다. 그녀의 오빠처럼, 탐부는 "원주민의" 모든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식민주의적 시각을 내면화하는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236).

한편 미션홈에서 생활하며 탐부는, 여성의 주체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냐샤가 바바무쿠루가 강요하는 '정숙하고 착한 식민지 여성'으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것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탐부에게는 자신의 몸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탐부는 피식민 원주민 여성의 '불안한 상황'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억압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식민교육을 통한 성공신화에 대한 믿음으로 바바무쿠루가 제시한 교육의 목표인 '총명하고 착한 여성'이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할 뿐이다. 탐부는 "의식적으로 나는 내 목표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교육받고 있었다. 교육받았을 때, 나는 직업을 찾고 거기 자리 잡을 것이다. […] 바바무쿠루는 이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준 나의 시금석이었다"(153)고 믿는다.

하지만 바바무쿠루가 탐부 부모에게 강요한 "교회 결혼식"(149)은 탐부가 그에 대한 맹목적인 존경과 신뢰, 그가 대변하는 식민교육에 대해 회의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루시아와 타케슈레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릴 때 제레미아는 주술사를 불러 "정화의식"(150)을 하자고 제안한다.[6] 하지만 바바무쿠루는 탐부 부모가 "신 앞에 교회에서"(149) 결혼식을 하여 "죄에서 사는 것"(153)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 결혼식이 "내가 속하는 사람들을 놀림감을 만들고 세상에서 내 합법적인 존재에 의혹을 제기하는 결혼식"(165)이자, 바바무쿠루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권력의 예라고 생각하는 탐부는 그 결혼에 참여하는 것이 부모님의 쇼나식 결혼의 불법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탐부는 "당연히 나는 내 부모님, 내 집, 나 자신을 그런 우스개 취급하는 그 혹은 그의 책략에 화가 났다"(151)고 하면서도 "내 후원자, 사실상 내 아버지, 그리고 선하고, 모든 사랑, 존경, 복종을 받을만한 바바무쿠루"(151)에게 화가 나는 것은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에게 화가 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언쟁을 꺼리지 않는 냐샤"(156)와 달리 "내 자신과 나의 가족을 해방시키겠다는 강렬한 욕망"(154)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반항해서는 안된다는 실제적인 이유로 탐부는 내적갈등을 겪는다. "평소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해지고 더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된 탐부를 바바무쿠루는 "여성 예절의 귀감"(157)이라고 칭찬하며 냐샤가 되어야 할 여성상이라 생각하고 냐샤에게 이 점을 강조한다. 탐부는 미션스쿨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홈스테드에서 옥수수 밭을 가꾸던 투지와 의지를 잃고 점점 더 순응하는 주체가 되어간다. 탐부는 "내 막연함과 큰아버지에 대한 내 숭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성취한 것, 그가 대변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이 내 비판 능력이 자라는 것을 저해했고, 어린 시절 내가 자신의 지위를 정의했던 에너지를 약화시켰다"(167)는 사실을 깨

6) 쇼나족은 대부분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계속 그들의 토속신앙을 믿었고 인간은 영매, "주술사"(149)를 통해 영혼들과 소통한다고 믿었다. 쇼나 부족 사이에는 여전히 마녀에 대한 믿음이 만연하고 병, 죽음, 다른 불운이 마녀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닫는다. 바바무쿠루의 계획이 터무니없고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탐부는 "그 결혼이 익살극이라는 것을 큰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약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대신 고통 받음으로써 그것을 위장하길 바랐다"167)고 고백한다.

교회 결혼식에 대한 바바무쿠루의 강요는 그의 권위와 지식에 대한 탐부의 믿음을 흔들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의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대신 그녀의 진실한 자아를 주장하기를 선택한다. 바바무쿠루의 터무니없는 시도에 맞서 그녀는 결혼식 참석을 거절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침대 시위를 한 것이다. 결혼식 날 아침, 탐부는 갑자기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으면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신체에서 정신이 빠져나가는 유체이탈을 경험한다. 탐부는 "나는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 나는 내 영혼이 마침내 내 몸 밖으로 미끄러져 나온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녀[냐샤]로부터 더욱 더 멀리 도망쳤고, 침대 발치 어딘가에 서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설득하는 그녀의 노력과 이를 무시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168)고 서술한다. "딸로서의 내 양심"(203)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미래가 전적으로 바바무쿠루의 자선에 달린 상황에서 탐부는 그에게 맞설 수 없고 대신 자신의 육체로부터 정신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이 상황을 넘긴 것이다.

몸의 마비를 통해 탐부가 결혼식에 참석하라는 바바무쿠루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그녀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한 저항의 행위이다. 결국 탐부는 그에게 자신은 그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알릴 수 있게 된다. 탐부의 결혼식 참석 거부에 바바무쿠루는 "나는 이 집의 가장이야. 내 권위에 도전하는 누구든지 이 집에서 '사악한 것'이야"(167)라고 분노한다. 탐부의 반항에 바바무쿠루는 그녀가 계속 자신을 거역한다면 미션스쿨에서 쫓아내고 지원금을 끊겠다고 위협한다. 결혼식이 끝난 후 바

바무쿠루는 탐부에게 불복종의 벌로 15대의 채찍질을 하고 2주 동안 하녀의 일을 대신 하도록 명령하지만 탐부는 그것이 "나의 새롭게 획득한 정체성"(171)의 대가로 생각하고 "깊고 고마워하는 자기학대적인 기쁨"(171)으로 그 일을 기꺼이 한다. 결혼식 참석을 거절하는 행위를 통해, 탐부는 자신의 지위를 재정립한다.

학년이 끝나갈 때, 일류 가톨릭 기숙학교인 성심여학교에서 수녀들이 탐부의 학교에서 두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방문한다. 그들은 장학생 선발을 위해 "일반상식과 일반능력"(180)를 실시하는데 테스트에 포함된 『작은 아씨들』(*Little Women*)이 100여 년 전 뉴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영국소설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듯 그것은 영국문화, 식민교육에 기반한 지식과 능력이다. 탐부는 이 장학금이 제공할 "로디지아 최고의 교육"(186)의 기회에 흥분한다. 하지만 영국교육을 경험한 냐샤는 이 "다인종 수녀원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프리카인을 유럽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냐샤는 그런 기회는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잊어버리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과정은 '동화'라고 불리고 그것은 자신들에게 남겨진 다면 골칫거리일 조숙한 소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182)이라고 주장한다. 장학금에 대한 냐샤의 이런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흑인에,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한 여성'으로서 무거운 부담의 희생자라고 믿는 탐부는 그 일류 사립학교가 "부담이 가벼운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그 부담들을 가볍게 해줄 기회"(182)라고 여긴다.

탐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장학금을 받게 되지만 그녀의 미래에 대한 선택은 여전히, 가부장인 바바무쿠루와 제레미아에게 달려있다. 바바무쿠루는 탐부가 미션스쿨을 마치고 "점잖은 남자와 결혼해 점잖은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며, "젊은 여성이 백인들과 그렇게 많이 어울리는 것은 좋

은 것이 아니다"(183)라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탐부의 진학에 반대하지만, 마이구루만이 "사람들은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숙하지 않다고 말하죠"(184)라며 탐부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탐부의 교육 추구 의지를 지지한다. 결국 탐부는 성심여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 장학금은 그녀를 잠재적 가부장제 경험에서 구한다. 오콘코는 엘리트 기관의 입학이 탐부에게는 놀라운 개인적 성취라고 지적한다(60). 성심여학교 입학을 위해 그녀는 짐바브웨 전체에서 2명의 흑인 여학생만 뽑는 매우 경쟁이 심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일류 기숙학교에 입학한 것은 탐부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녀가 꿈꾼 것 이상의 성취이자 기회이다.

『불안한 상황』에서 '인종' 문제는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두드러진다. 홈스테드와 미션홈의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탐부가 입학한 성심여학교는 박애적이고 진보적으로 보이기 위해 소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 학교에서의 삶은 피부색에 의해 좌우되고 교육은 해방된 주체가 되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대신 순응하는 주체를 만드는 쪽으로 준비를 갖추게 한다(Mule 109). 학교에 도착한 탐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학생들 가방을 나르는 포터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가족만이 유일한 흑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한다. 그녀 가족을 맞이하며 탐부와 냐샤를 보고 "어느 쪽이지?"(198)라고 묻는 백인 수녀에게 탐부는 얼굴 없는 무리 중 이름없는 한 멤버일 뿐이다. 또한 그 수녀는 부주의하게 바바무쿠루 가족의 이름을 "See-ga-ookkey"라고 부르며 바바무쿠루를 "일반적인 흑인 남성"으로 인종적으로 낮춘다(McWilliams 105). 바바무쿠루는 성공한 흑인이지만 지방의 미션스쿨 교장일 뿐이고 그의 가족과 학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도시 가톨릭 학교에서 백인 수녀들과 직면할 때 그는 단지 한 명의 아프리카인일 뿐이다. 탐부가 입학한 성심여학교

는 '다인종', '통합적'이라고 홍보하지만, 흑인 학생은 여섯 명뿐이고 그들은 모두 한 기숙사 방에 배치된다. 아프리카 학생들은 한정된 아프리카 구역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백인 학생들은 한 방을 네 명이 사용하고 각자 옷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좁은 방의 숨 막히는 배치에 대해 묻는 바바무쿠루에게 백인 수녀는 "올해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모두 여기에 넣어야 했어요"(198)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이것은 아프리카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과 똑같이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학금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식민지의 '다인종 통합학교'의 흑인 장학생은 바바무쿠루처럼 백인을 흉내내는 "착한 깜둥이"(204)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바(Homi Bhabha)의 논지에 따르면, 식민권력과 식민교육에 의해 제국에 동화되고 지배자를 모방하는 '거의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피식민은 식민통치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된다.

전통적 성장소설이 주인공이 정체성을 획득하고 적절한 역할을 통해 기존의 사회 질서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그리는 반면 탐부의 성장 서사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확고한 자아정체성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결말도 보여주지 않는다. 탐부는 자신을 탈출에 성공한 여성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소설의 끝에서 남성 중심과 인종차별의 사회 속 탐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탐부의 전망은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단 가렘바는 탐부의 성장이 서사의 틀 밖에서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우웨케에 따르면, 탐부의 탈출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관한 서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다.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화자로서의 그녀의 지위와, 여성 억압과 지배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그녀의 탈출을 시사하는 것이다(82-83).

어린 탐부의 고난과 경험, 어리석음을 서술하는 성인 화자의 성숙하고 분별력있는 코멘트는 '식민교육에 의한 발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화'라는 탐부의 깨달음이 텍스트 경계 넘어서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에 화자는 "의심의 씨앗"에 대해 언급한다.

> "씨앗은 자란다. 그때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라도, 더 이상 나는 성심과 그것이 대변하는 것을 '내 수평선의 일출'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극도로 발작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자기주장을 하고, 문제 삼고, 세뇌당하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를 데려왔다. 그것은 나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 확장의 과정이었다." (230)

이것은 탐부의 침묵의 끝과 목소리 내기의 시작으로 안내한다. 탐부는 식민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좀 더 주의 깊게 질문을 던지고 백인 문화가 그녀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에 조심하겠다고 맹세하며 식민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인 탐부는 글쓰기를 통해 비가시화되고 침묵되어 온 아프리카 여성 하위주체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하고 주체성을 회복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탐부의 글쓰기는 탈식민 여성 주체의 목소리 내기이자 '아프리카 서발턴들의 도전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2021년 7월 15일 아기를 출산하다 사망한 짐바브웨의 14세 소녀 마차

야(Memory Machaya)로 인해 짐바브웨의 조혼 문제, 여성문제가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많은 가정이 가난으로 인해 소녀들의 학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조혼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의 3분의 1이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조혼풍습에 대해 짐바브웨의 여성 운동가 윈(Everjoice Win)은 짐바브웨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개인의 권리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7] 아프리카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문학에 주요한 문학적 기여를 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불안한 상황』은 과거 로디지아를 너머 아프리카 전반의 식민주의, 가부장제, 여성문제, 식민교육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불안한 상황』은 지리적, 이념적인 경계를 이동하면서 탈식민적 주체성을 회복해가는 탐부의 성장서사이다. 이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모두 식민자의 시선 아래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단가렘바는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둘 다 하위 집단에 대한 통제와 지배의 방식이며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토착 문화의 가부장제와 식민주의가 어떻게 공모하는지 시사한다. 탐부는 주변 여성들의 삶을 관찰하며 배움의 많은 단계를 통과하면서 여성에 억압적인 사회에서 복잡한 상황과 타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달시킨다. 쇼나 전통문화를 대변하는 홈스테드, 식민주의와 기독교 문화를 대변하는 미션스쿨, 인종차별적 사회를 대변하는 성심여학교로 이어지는 탐부의 여정을 통해 작가는 식민지 로디지아 사회가 겪고 있는 젠더, 계층, 인종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이니니, 루시아, 탐부의 경우에 가난은 그들의 고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홈스테드와 미션홈의 생활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시골과 도시, 빈부, 계급과 상관없이 만연함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가난한 홈

7) "Outrage after Zimbabwean girl, 14, dies giving birth at church shrine", *BBC News*, 8 August, 2021.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58130891>

스테드에서도 중산층 미션홈에서도 억압당하고 통제 당한다. 여성들은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고 이것은 그들의 신체를 통해 드러난다. 홈스테드의 마이니니는 우울증에 시달려 단식을 하고, 미션홈에서 마이구루 역시 남편에 복종하는 굴종적인 삶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여성의 짐'에 짓눌려 가난과 노동으로 점철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은 탐부는 교육만이 가난과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산층의 지식인 여성 마이구루의 삶을 통해 교육이 반드시 여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이니니와 마이구루는 비록 다른 계층의 여성이지만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하거나 심지어 공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냐샤와 루시아를 통해 단가렘바는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가부장제의 여성 억압이 식민자의 피식민자에 대한 억압과 유사한 것임을 시사한다. 식민주의와 가부장제가 공모하여 여성에게 강요하는 '정숙함', '착함'은 곧 여성 억압과 통제를 의미한다. 냐샤와 루시아의 저항은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억압에 저항하는데 있어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부장제와 기독교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려는 바바무쿠루에 맞서 냐샤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뿐이고 그것은 거식증으로 나타난다. 루시아는 가부장제의 규범을 넘어 주체성을 갖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유로운 여성상을 보여준다. 냐샤와 달리 여성 억압의 덫에서 탈출하는 루시아의 저항이 성공적인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해 나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루시아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바바무쿠루와 협상하는 모습은 토착 문화와 식민화의 영향들 사이에 탐부가 협상하면서 주체성을 회복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돕는다. 또한 단가렘바는 루

시아를 통해 여성 연대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점들이 루시아가 마이니니, 마이구루, 냐샤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탐부는 마이니니와 마이구루의 모습을 통해 배운 것처럼 냐샤와 루시아를 통해 억압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단가렘바는 마이니니와 마이구루, 냐샤와 루시아라는 여성 인물들을 절충한 인물로 탐부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다양한 인물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여성 억압을 드러내는 탐부의 서사는 그녀의 발전을 따라가며 식민지 로디지아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계급과 상관없이 어떻게 여성을 통제하고, "여성성의 희생자"(115)로 만드는데 공모하는지 시사한다. 단가렘바는 기존 역할들에 "끊임없이 협상"하는 여성들의 재현에서 '아프리카인'과 '여성'이라는 말을 질문한다(Aegerter 31). 이 소설은 식민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억압구조에 갇혀 통제당하고 침묵당한 아프리카 여성 하위주체가 목소리를 회복하는 것, 탈식민 여성 주체로서 목소리 내기의 어려움을 치열하게 그려낸다. 이 소설에서 단가렘바는 전통 관념에 도전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아프리카 문학에서 여성 인물들의 성격을 개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 지배가 끝났어도 여전히 식민주의가 잔재하는 짐바브웨에서는 독립 이후에도 오랫동안 탈식민 여성의 시각에서 글을 쓰는 것이 금기였다. 하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문화 구조 속에 강요당한 여성의 침묵을 파괴하는 이 텍스트는 탈식민 여성 주체가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비가시화되고 주변화된 아프리카 서발턴의 삶을 재현한 탐부의 이야기는 공식적 남성 역사에 대한 대항서사로서 기능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Dangarembga, Tsitsi. *Nervous Conditions*, Women's Press, 1988.

2. 논저

Aegerter, Lindsay Pentolfe. "A Dialectic of Autonomy and Community: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15.2, 1996.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1968.

Gorle, Gilian. "Fighting the Good Fight: What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Says about Language and Power", *The Yearbook of English Studies* 27, 1997.

Hay, Simon. "*Nervous Conditions*, Lukács, and the Postcolonial Bildungsroman", *Genre* 46.3, 2013.

McWilliams, Sally.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At the crossroads of feminism and post colonialism", *Journal of Postcolonial Writing* 31.1, 1991.

Mule, Katwiwa. "Blurred Genres, Blended Memories Engendering Dissidence in Nawal el Saadawi's *Memoirs of a Woman Doctor* and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MERIDIANS-MIDDLETOWN* 6.2, 2006.

Nfah-Abbenyi, Juliana Makuchi. *Gender in African Women's Writing: Identity, Sexuality and Difference*. Bloomington: Indiana UP, 1997.

Nnaemeka, Obioma. "From Orality to Writing: African Women Writers and

the (Re)Inscription of Womanhood",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25.4*, 1994.

Okonkwo, Christopher N. "Space Matters: Form and Narrative in Tsitsi Dangaremgba's *Nervous Condition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4.2, 2003.

Plasa, Carl. "Reading 'The Geography of Hunger'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From Frantz Fanon to Charlotte", *The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33.1, 2016.

Rahman, Muzna. "Bodily secrets: The history of the starving body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50.3, 2014.

Selvick, Stephanie M. "Beyond the binary: Same-sex desire and gender defiance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Journal of Postcolonial Writing* 49.3, 2013.

Shaw, Carolyn Martin."'You had a daughter, but I am becoming a woman': Sexuality, Feminism and Postcoloniality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and *She No Longer Weep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 38.4, 2007.

Sugnet, Charles. *"Nervous Conditions*: Dangarembga's feminist reinvention of Fanon." *The Politics of (M)Othering: Womanhood, Identity and Resistance in African Literature*. ed. Obioma Nnaemeka. Routledge, 1997.

Thiong'o, Ngugi Wa. *Decoloniz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London: James Curry, 1986.

Thomas, Sue. "Killing the Hysteric in the Colonized's House: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27.1, 1992.

Thompson, Katrina Daly. "The Mother Tongue and Bilingual Hysteria: Translation Metaphors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43.2, 2008.

Uwakweh, Pauline Ada. "Debunking Patriarchy: The Liberational Quality of Voicing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26.1, 1995.

Waugh, Amanda. "'Willing Liberates': Nietzschean Heroism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Pacific Coast Philology* 46, 2011.

Wright, Derek. "More than just a playful of food: Regurgitating Colonialism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Commonwealth* 17.2, 1995.

3. 인터넷 사이트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58130891

<Abstract>

Challenging Voices of the African Subaltern Wome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Kim, Mi-ry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Zimbabwean female writer,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1988) from a postcolonial feminist perspective. The novel is a Bildungsroman of Tambu, a Rhodesian girl dealing with women's lives who had been marginalized in African literature. This paper examines the African subaltern women's lives and their challenging voices in the text through the journey of her pursuit of the colonial education. Dangarembga places the female characters living under the double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in colonial and patriarchal Rhodesia into three categories: 'entrapped', 'rebellious' and 'escaped' women. Mainini, from an impoverished homestead, and Maiguru, from an educated middle class background, tend to comply and conspire with the dominant ideologies. Nyasha strongly resists the conspiracy between patriarchy and colonialism that constrain indigenous women's sexuality. And she also warns Tambu about the danger of a colonial education—assimilation.

However her self-destructive rebellion expressed through anorexia is not successful. Lucia escapes the trap of a social structure that oppresses women although she is poor and uneducated. Living liberally and boldly outside of the marriage institution, she achieves mental and economical independence. And she suggests the importance and possibility of "fierce, sisterly solidarity". Dangarembga suggests patriarchy and colonialism both are ways to dominate and control the subordinate group and native women suffer doubly from their complicity.

Key words : Tsitsi Dangarembga, *Nervous Conditions*, African literature, Postcolonial feminism

김미령
호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62399)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60 호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6703호
전자우편: minerva210@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8월 31일 투고되어 2021년 10월 6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1년 10월 13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